

## 청소년의 사이버 데이팅 폭력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박 옥 임 · 배 영 숙\* · 김 정 숙\*\* · 김 종 성\*\*\*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 광양중동중학교\*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Research on the Cyber Dating Violenc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ark, Ok Im · Bae, Yeong Suk\* · Kim, Jeong Sook\*\*

Dept. of Consumer and Family - 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Kwangyang Jungdong Middle school, Kwangyang, Korea\*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Dept. of Social Welfare, Hanlyo University, Gwangyang,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ctors of cyber dating violence. The subjects were 548 adolescents in high schools. The gathered information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 t-test, ANOVA, and Correlation by using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65.3% of the answerers experienced cyber dating, and 44.5% of the students have experienced cyber dating violence. (2) 40.3% of the students were damaged by psychological violence, and 21.1% of the students have caused psychological violence. (3) 41.9% of the damaged students and 18% of the perpetrating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total answerers, but among 244 experienced students, 94.3% were damaged students and 40.6% perpetrated sexual violence, so it is concluded that experienced students experience sexual violence. (4) Looking over the social demography factors and cyber dating violence, boys rather than girls, and vocational school students rather than academic school students have more cyber violence experiences. (5)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ll cyber violence experiences.

Key words: adolescent, cyber dating violence, high school students

#### I. 서 론

인터넷 사용의 확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새로운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변혜정 2001). 최근 정부가 사이버 폭력을 4대 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근본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 2의 세상인 사이버 세계에서 익명이라는 이유로 스토킹, 성폭력 등 폭력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집단은 10대로서 사이버 공간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청소년 삶의 일부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가고 있으며(김미운 2003), 사회적 관계와 생활이 시·공간적으로 재구조화되어 청소년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매체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성에 대한 우정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변화되며(정옥분 1999), 성 개방 풍조와 대중매체를 통한 성의 상품화 및 성적 자극 등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과 교제가 확장되는 시기이다. 또한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사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정보통신부 2002),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귄 기회를 갖게 된다(윤영민 2001).

청소년은 정보통신 활용능력, 사이버 공간의 활용성이 높은 집단으로(천정웅 2000a) 정보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이다(Tapscott 1998). 청소년의 특징은 감각추구 성향이 강하여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과 비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상관도가 있으며(양돈규 2001) 사이버 공간은 이성친구와의 새로운 만남, 음란물 접촉 등 새로운 욕구 및 호기심 등을 충족시키는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청소년들의 음란문화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확대되는 실정이다. 한편 청소년에 의한 컴퓨터 관련 일탈 행동과 범죄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천정웅 2000b),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의 49%인 6백 75건이 10대에 의해 발생되고, 사이버상의 범죄가 음란물, 음란채팅과 관련되어 있으며(중앙일보 2001. 3. 26), 데이팅 과정에서 폭력을 한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폭력의 피해여성이 나중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는 중요한 사실(김예정·김득성 1999)과 음란물과 음란채팅은 성폭력 및 청소년 성매매로 연결(이해경 2002)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학업 부적응과 유해매체의 경험은 다른 비행에 비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김진희·김경신 2004).

또한 인터넷 초보자 일수록 성폭력 피해를 입

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심영희 2001) 등 인터넷상의 폭력의 피해자들은 단순한 정신적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 기쁨이 차단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사이버 데이팅 폭력을 심리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혜정(2001)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상의 일반 사이트 피해는 욕설이 46.1%, 성관련 욕설이 34.2%, 사이버 섹스 요구가 29.6%, 성적 표현이 24.5%, 스토킹이 16.6%, 현실적인 성관계 요구가 15.8% 순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51.8%, 남성은 27.9%로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 39.6%와 비교하여 볼 때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많은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6)의 연구에 의하면 '음란물을 본 후에 모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0.5%(남학생 77.9%, 여학생 22.9%)가 모방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성폭력 가해 경험자 중 47.5%가 모방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음란 매체의 단속 강화와 건전한 성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익산성폭력상담소(2000)에 의하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외설물을 접촉한 경험은 50.4%며, 85%의 학생들은 채팅을 경험했고, 채팅이나 메일을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경험은 594명 중 42.8%(254명), 채팅이나 메일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묻는 문항에는 254명 중 13.6%(35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4.1%(87명)는 원조 교제의 경험도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 8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은숙 2001)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의 94.6%가 사이버 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었고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은 부정적인 성관련 정서 및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높았다. 청소년의 사이버 데이팅은 음란사이트 접속과 관련성이 높고, 사이버 성폭력은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남영옥·이상준 2002). 데이팅 폭력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은 성역할 태도(Bernard 1983), 폭력에 대한 수용 태도(김예정 1993),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김예정 1993; 전희정·지영숙 1999; 김현옥 2001;

Riggs et al. 1990), 물질남용(김용미 1996; Stets & Henderson 1991) 등이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의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가치관과 자아 존중감의 손상을 끼칠 뿐만 아니라 추후의 대인 관계의 친밀성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Lloyd 1991).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 중 가장 중요한 고등학생의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예방 및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으로 하였으며, 대도시(대구, 부산, 광주광역시), 중 소도시(전남 순천시와 여주시, 강원도 속초시, 전북 익산시), 농어촌지역(충남 청양군, 전북 함열읍, 전남 보성군)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도시에 재학중인 학생 155명, 중소도시에 재학중인 학생 279명, 농어촌 지역에 재학중인 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총 600명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된 문항이 많게 파악된 52명(8.7%)을 제외하고, 548명(91.3%)을 분석하였다.

###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선행 연구 및 문헌(김예정·김득성 1999; 김정란 1999; 조현각 1999; 김현옥 2001)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실태(사이버 데이팅의 경험정도,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성 역할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약물복용 여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총 58문항이었다.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심리적 문항은 '인격적인 모욕을 주거나 욕설을 했다', '사이버 스토킹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본격적으로 사귀자고 요구했다' 등이었고, 성적 폭력의 문항은 '성에 관한 표현 및 성적인 응답패설

을 하였다', '사이버 섹스를 요구했다', '현실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등이었다. 응답 범주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0.61 이상이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다. 설문지의 예비조사는 2002년 6월 2일에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다음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자료 분석은 Windows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과 집단간의 차이는 t-test, ANOVA, 상관관계 등으로 분석되었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이버 데이팅의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57.7%(316명)로 다소 비율이 높았고, 학년은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33.8%, 고등학교 1학년이 32.5%로 거의 비슷한 분포였다. 계열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50.9%, 인문계 고등학생이 49.1%이었고, 종교는 '없음'이 57.5%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지역은 중소도시가 50.9%, 대도시가 24.6%, 농어촌 지역이 24.5% 순으로 중소도시의 비율이 높았다.

사이버 데이팅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65.3%(358명)이었고, 사이버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44.5%(244명)를 차지하였다. 사이버 데이팅 유경험자 358명 중에서 사이버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68.2%이었다. 이는 익산지역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익산성폭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48)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316(57.7)
	Female	232(42.3)
Grade	1st	178(32.5)
	2nd	185(33.8)
	3rd	185(33.8)
Course	Academic course	269(49.1)
	Vocational course	279(50.9)
Religion	Have	233(42.5)
	Not have	315(57.5)
Residential area	Large city	135(24.6)
	Medium-small city	279(50.9)
	Rural	134(24.5)
Experience of cyber dating	Yes	358(65.3)
	No	190(34.7)
Experience of cyber dating violence	Yes	244(44.5)
	No	304(55.5)
The Subject of dating (n=358)	Middle · high school student	281(78.5)
	College student	43(12.0)
	Other	34(9.5)
Period of dating(month) (n=358)	< 1	255(71.2)
	1-2	55(15.4)
	3≤	48(13.4)
Method of dating(month) (n=358)	Message chatting	299(83.5)
	Picture chatting	36(10.1)
	Other	23(6.4)

력상답소(2000) 연구의 사이버 데이팅 경험을 43.8%와 비교하면 사이버 데이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의 상대자는 중·고등학생이 78.5%(281명), 대학생이 12%(43명)로 주로 또래 집단이나 학교의 선·후배 관계와 데이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이나 직장인인 기타가 9.5%(34명)로서 낮은 비율이지만 경제적인 능력을 매개로 한 원조계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데이트 기간은 1개월 미만이 71.2%(255명)로 짧은 기간 동안 사이버 데이팅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데이팅 방법은 주로 문자 채팅(83.5%, 299명)

이 이루어지나 PC방이나 화상 채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음란 사이트 안내와 동영상 등 동의 없이 내보내기도 하고, 본인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방법 등의 채팅도 이뤄지고 있다. 음란물에서 보여지는 성이 청소년들의 성적인 행위를 유희와 폭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때 건전한 성 윤리관의 정립이 요구된다.

## 2.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경험정도

조사 대상자의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시간, 장소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피해를 기준으로

**Table 2.** The time and the place experienced cyber dating violence(plural answers)

(N=244)

Variable	Category	Damaged experience		Damaging experience	
		N	%	N	%
Time	1-2hr after school	59	24.2	30	12.3
	Evening	104	42.6	50	20.5
	Night(past 11 p.m)	194	79.5	92	37.7
	Other	73	29.9	34	13.9
Place	Home	193	79.1	85	34.9
	Friend's house	71	29.1	30	12.3
	PC room or game room	182	74.6	75	30.1
	Other	49	20.1	20	8.2

주로 폭력을 경험한 시간을 살펴보면 11시 이후의 심야 시간이 79.5%(가해 37.7%), 저녁 시간이 42.6%(가해 20.5%)로 주로 야간에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가정이 79.1%(가해 34.9%), PC방이나 게임방이 74.6%(가해 30.1%), 친구의 집이 29.1%(가해 12.3%)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지도가 강조되어야 사이버 데이팅 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PC방이나 게임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PC방이나 게임방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접촉 방지와 관심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이 요구된다.

조사 대상자의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경험정

도를 심리적, 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사이버 데이팅의 심리적인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피해가 40.3%(221명), 가해가 21.1%(116명)이나 사이버 데이팅 폭력 유경험자 244명을 대상으로 보면 피해는 90.6%, 가해는 47.5%로 사이버 데이팅을 경험한 학생들은 대부분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간적인 모욕을 주거나 욕설을 한 경우가 72.4%(가해 43.9%), 본격적으로 사귀자고 종용한 경우가 70.5%(가해 17.6%), 사이버 스토킹을 하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23.5%(가해 11.1%)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심리적인 폭력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심심해서(50.9%), 호기심(28.3%)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청소년 여가활동과 놀이문화의 부재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익산성폭력상담소 2000).

성적 폭력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피해가 41.9%(230명), 가해가 18%(99명)로 사이버 데이팅 폭력 유경험자 244명을 대상으로 보면 피해가 94.3%, 가해가 40.6%이다. 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성에 관련된 욕설을 한 경우가 73%(가해 26.2%), 성에 관한 표현 및 성적인 음담패설을 한 경우가 68.9%(가해 19.3%), 사이버 섹스를 요구한 경우가 62.7%(가해 11.5%), 현실적인 성 관계를 요구한 경우가 53.3%(가해 12.3%), 음란 사이트를 안내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여 준 경우가 49.2%(가

**Table 3.** The type and the frequency of cyber dating violence(plural answers)

(N=244)

Variable/Content	Damaged experience		Damaging experience	
	N	%	N	%
<b>Psychological violence</b>	221	90.6	116	47.5
Heaped insults upon or abuse on a man.	176	72.4	107	43.9
Threatened a person to do cyber stalking.	57	23.5	27	11.1
Tempted a person to go out with me in earnest.	172	70.5	43	17.6
<b>Sexual violence</b>	230	94.3	99	40.6
Abused language related sex.	178	73	64	26.2
Told sex expression and sexual obscene languages.	168	68.9	47	19.3
Requested to have cyber sex.	153	62.7	28	11.5
Requested to have sex.	130	53.3	30	12.3
Showed a person genitalia picture.	88	36.1	15	6.1
Guided obscene internet site or showed gaudy picture.	120	49.2	36	14.8

해 14.8%), 자신의 성기를 화면으로 보여 준 경우가 36.1%(가해 6.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성에 관한 음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특히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성숙을 빨리 경험하고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산재해 있음으로 인해 이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혼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이성희·한은주 1998).

심영희(2001)의 연구에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 39.6%, 가해를 했던 사람 9.6%와 비교해도 피해와 가해 모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와 가해의 비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첫째, 피해 경험을 인정하거나

말하기는 쉽지만 가해 경험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둘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후유증 때문에 쉽게 잊지 않지만 가해를 한 사람은 장난삼아 했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한 사람의 가해자가 한 마디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익산성폭력상담소(2000)의 연구에 의하면, 채팅 도중 성적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사이버 데이팅 유경험자 중 49.5%, 채팅 후 13.6%가 직접적인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채팅을 통한 원조교체의 경험도 전체 응답자 중 10.6%로 보고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현실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Table 4. Cyber dating viol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Attitude of sexual	Attitude of role violence	Taking medicine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damaged	damaging	damaged	damaging
(N=244)									
<b>Gender</b>									
Female	2.46(.92)	1.68(.62)	1.28(.85)	1.47(.54)	1.16(.31)	2.21(.87)	1.32(.57)	2.23(.87)	1.11(.39)
Male	2.44(.92)	1.82(.77)	1.33(.96)	1.50(.62)	1.29(.56)	2.36(.90)	1.79(.84)	2.01(.87)	1.59(.67)
t-value	.24	-2.29*	-.63	-.67	-3.30**	-1.30	-5.21***	-1.99*	-6.34***
<b>Course</b>									
Academic course	2.47(.91)	1.66(.60)	1.27(.83)	1.43(.48)	1.20(.36)	2.32(.90)	1.47(.74)	2.13(.92)	1.24(.62)
Vocational course	2.43(.94)	1.81(.76)	1.33(.96)	1.53(.65)	1.24(.50)	2.20(.85)	1.52(.69)	2.17(.82)	1.52(.69)
t-value	.45	-2.53*	-.86	-2.20*	-1.08*	1.09	-.56	-.42	-1.44
<b>Religion</b>									
Not have	2.51(.98)	1.71(.68)	1.35(.97)	1.52(.60)	1.18(.37)	2.24(.91)	1.45(.68)	2.16(.90)	1.32(.60)
Have	2.40(.88)	1.76(.70)	1.26(.84)	1.45(.55)	1.24(.49)	2.29(.87)	1.53(.74)	2.14(.85)	1.27(.54)
t-value	1.38	-.75	.84	1.48	-1.55	-.40	-.87	.12	.71
<b>Grade</b>									
1st	2.54(.86)	1.79(.74)	1.27(.91)	1.50(.52)	1.23(.37)	2.34(.92)	1.59(.80)	2.05(.95)	1.30(.66)
2nd	2.46(.95)	1.75(.70)	1.33(.98)	1.50(.56)	1.21(.40)	2.13(.86)	1.51(.79)	2.12(.84)	1.34(.68)
3rd	2.35(.96)	1.68(.63)	1.29(.81)	1.45(.64)	1.22(.53)	2.30(.87)	1.49(.71)	2.24(.83)	1.25(.36)
F-value	2.04	1.20	.21	.19	.02	1.17	1.07	1.22	.64
<b>Residential Area</b>									
Large city	2.34(.88)	1.63(.68)	1.22(.78)	1.44(.59)	1.15(.44)	2.12(.92)	1.35(.76)	2.22(.92)	1.32(.60)
Middle-small city	2.53(.92)	1.72(.65)	1.33(.96)	1.50(.53)	1.24(.42)	.86(.07)	1.57(.74)	2.08(.80)	1.27(.38)
Rural area	2.39(.96)	1.90(.76)	1.32(.88)	1.50(.64)	1.23(.44)	2.43(.86)	1.47(.56)	2.27(1.00)	1.22(.50)
F-value	2.33	5.36***	.73	.45	2.07	1.71	1.97	.112	.32

\*p <.05 \*\*p <.01 \*\*\*p <.00

는 피해가 사이버 데이팅 유경험자 중 53.3%로써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 변혜정(2001)은 익명성, 탈억제성, 비대면성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이 심각한 성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더 쉽게 성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교육 즉, 지적인 지식만이 아닌 사이버 세계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신고 센터의 홍보 강화와 증설로 사이버 폭력의 예방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팅 폭력 정도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성별, 계열, 학년, 종교유무, 생활지역으로 분

리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간에는 Duncan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4). 성별로 비교를 하면 폭력에 대한 태도(p<.05)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욱 수용적이며, 학교 폭력(p<.01)도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폭력의 가해 경험(p<.001), 성적 폭력의 가해 경험(p<.001)이 여학생 보다 많았으나 성적 폭력의 피해(p<.05)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 폭력에 대한 수용 태도,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모두 p<.05 수준에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의 유무나 학년별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 폭력에 대한 태도(p<.001)이었는데, 농어촌이 중소도시와 대도시 보다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Variable	Attitude of sexual	Attitude of role violence	Taking medicine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damaged)	Psychological violence (damaging)	Sexual violence (damaged)	Sexual violence (damaging)
Attitude of sexual role	1.00								
Attitude of violence	.27***	1.00							
Taking medicine	.01	.10*	1.00						
Family violence	.12**	.13**	.41***	1.00					
School violence	.06	.18***	.25***	.36***	1.00				
Psychological violence (damaged)	.04	.17**	.20**	.33***	.22**	1.00			
Psychological violence (damaging)	.07	.30***	.17**	.16*	.25***	.33***	1.00		
Sexual violence (damaged)	.05	.11	.16*	.41***	.21**	.46***	.09	1.00	
Sexual violence (damaging)	.04	.31***	.18**	.14*	.23***	.28***	.61***	.14*	1.00

\* p<.05 \*\*p<.01 \*\*\* p<.001

#### 4.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상관관계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성역할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약물복용 여부,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등으로 나눠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가정 폭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학교 폭력, 심리적 폭력의 가해 및 성적인 폭력의 가해와  $p<.001$  수준에서, 심리적 폭력의 피해와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폭력의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학교 폭력의 경험 및 심리적, 성적 폭력의 가해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약물 복용은 심리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의 피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가정 폭력은 심리적 및 성적 폭력의 피해와  $p<.001$  수준에서, 심리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의 가해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데이팅 폭력이 가정 폭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폭력은 전 영역의 사이버 데이팅 폭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이버 데이팅 폭력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폭력이 성적 폭력으로, 성적 폭력이 심리적 폭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일반적인 실태 및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예방 및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중 사이버 데이팅을 경험한 학생은 65.3%며, 사이버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44.5%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음란문화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확대되는 실정이므로 사이버 데이팅 폭력은 단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데

이팅 상대자는 대부분 또래 집단이고, 데이팅 기간도 1개월 미만이 71.2%로 가장 많고, 대부분 문자 채팅(83.5%)으로 데이팅이 이뤄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시간은 심야 시간으로 79.5%(가해 37.7%)며, 폭력의 피해 장소는 가정 79.1%(가해 34.9%), PC방이나 게임방 74.6%(가해 30.1%)이었다.

둘째,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경험 정도를 보면, 심리적인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피해 40.3%, 가해 21.1%며 유형별로는 인간적인 모욕을 주거나 욕설을 한 경우가 피해 72.4%, 가해 43.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피해 41.9%, 가해 18%이나 사이버 데이팅 폭력 유경험자 244명 중에서는 피해 94.3%, 가해 40.6%로 대부분의 유경험자들이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성에 관한 욕설 피해 73%(가해 26.2%), 성적인 표현 및 음담패설 피해 68.9%(가해 19.3%), 사이버 섹스 요구 62.7%(가해 11.5%), 현실적인 성관계 요구 53.3%(가해 12.3%) 순이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이버 데이팅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 보다 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별로 폭력의 수용 태도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잔존해 있는 곳일수록 폭력의 수용 태도가 높았다.

넷째,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관계 변인들끼리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심리적 폭력의 피해에 가정 폭력, 가해에 폭력의 수용 태도와 학교 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력의 피해 경험, 성적인 폭력의 피해에 가정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피해 경험, 가해에 폭력의 수용 태도와 학교 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력의 경험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데이팅 폭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가상공간에서의 폭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데이팅 폭력이 배우자 폭력의 전조라는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부모와 학교의 상호 협력적인



관리 및 교육적,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폭력의 피해 장소가 주로 가정, PC방, 게임방이므로 부모의 역할과 지도가 강조되어야 하고 PC방이나 게임방 업주의 음란물 접촉 방지교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이 요구되며, 사이버 데이팅에 있어서 음란 사이트 및 동영상 안내, 자신의 중요한 신체 부위 노출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시급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중 매체와 주변 유해 환경(PC방, 전화방, 비디오방 등)에 의한 왜곡된 청소년들의 성의식 형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건전한 또래 놀이 문화 형성과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과 가장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생들의 성의식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올바른 사용에 관한 가치관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 강화와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생활지도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도 사이버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진희·김경신(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5(1), 137-166.  
 김미윤(2003) 사이버공간 경험의 의미와 청소년 문화. 청소년학연구 10(4), 211-232.  
 김용미(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김예정(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표출 행동.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예정·김득성(1999) 대학생들이 데이터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I)-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87-202.  
 김현옥(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이성교제와 교제 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영옥·이상준(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변혜정(2001) 온라인 성폭력,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정책사회연구소 77-97.  
 심영희(2001) 사이버 성폭력, 어디까지 왔나?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한국성폭력상담소 3-35.  
 양돈규(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윤영민(2001)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행동: 정책개발을 위한 이론적 탐색. 청소년학연구 8(2), 199-228.  
 이성희·한은주(1998) 청소년의 성문화 실태에 관한 연구-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72-92.  
 이해경(2002) 청소년의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게임 중독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청소년학연구 9(1), 91-114.  
 익산성폭력상담소(2000) 청소년의 음란 대중매체 접촉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익산시를 중심으로-. 익산성폭력상담소, 6-43.  
 전희정·지영숙(1999). 청소년의 부모 폭력에 관한 연구-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제 37권 6호, 123-137.  
 정보통신부(2002) 정보화에 대한 연차 보고서. 정보통신부.  
 중앙일보(2001. 3. 26) 연예인 동영상 3시간이면 구해. 천정웅(2000a)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천정웅(2000b) IT시대의 N세대: 정보일탈과 사이버참여. 청소년행동연구(경산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5집, 52-74.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홍은숙(2001)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관련 정서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ernard ML, Bernard JL(1983) Violence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283-286.  
 Lloyd SA(1991) The darkside of courtship: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Family Relations 40, 14-20.  
 Riggs DS, O'Leary KD, Breslim FC(1990) Multiple correlate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Stets JE, Henderson DA(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Tapscott Don(1998)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Net Generation. McGraw-Hill.